

# 소상공 “대출·보증지원, 코로나19 극복에 효과적”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출·보증지원 확대'가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 결과,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중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은 '대출·보증지원 확대'(40.0%)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8.2%) 순으로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500곳 중 40%가 응답...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도 긍정적 영향

중점 추진 방향에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가 가장 많아

조사됐다.

또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활용한 소상공인(전체의 18.4%)의 92.3%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특히 종업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응답자 전원(100%)이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38.6%였으며 △노란우산공제(32.2%) △제로페이(6.6%) △일반경영안정자금(3.2%) △1

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1.0%)

등의 순으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지원 사업을 활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61.4%로, 미활용 사유로는 △지원책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44.3%) △신청방법 및 서류작성이 까다로움(24.8%)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현재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

요한 지원책으로 △세(稅) 부담 완화(61.4%) △자금 지원 확대(58.4%)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소비촉진(9.6%)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나 소상공인의 고질적 애로인 자금난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과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43.4%)가 가장 많았고, △세금 부담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 확대(35.2%)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 및 감독 강화(9.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1대 국회와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3.0%) △골목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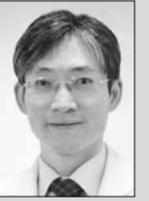
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41.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0%)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28.2%) 등의 순으로 앞으로 임대료 상승 및 임대차 기간 갱신 관련 임차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은 자금난 해소, 소비 촉진 등 지속적인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상황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회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 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임상연구 거점 역할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신임 원장에 이광복 교수



전북대학교 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의생명연구원 신임 원장에 정형외과 이광복 교수를 임명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은 임상 및 기초의학의 연구를 통한 의학발전과 국민보건향상을 목적으로 1991년 임상실험연구실로 출발했다. 1997년 임상연구원, 2012년 의생명연구원으로 승격, 운영되면서 새로운 의생명연구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2016년 개소한 임상연구지원센터에 자리잡은 의생명연구원은 센터를 중심으로 연구효율의 극대화와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임상연구지원센터는 임상 기초연구 성과를 활용해 환자 임상적용이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신의기술 개발 등 임상연구의 거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창출의 보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임 이광복 원장은 "임상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 연구역량을 집중시켜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위해 노력하면서 지역내 의료 R&D 거점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광복 교수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및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족부 및 족관절질환, 족부 및 족관절 외상 및 골절, 스포츠 손상 등의 전문진료를 맡고 있다.

대한족부족관절학회 및 미국족부족관절학회 program committee로 활동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신임 익산국토관리청장에 박성진 도시계획국장

국토교통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제56대 청장에 박성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사진)이 임명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박 청장은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지난 1991년 건설부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제주지방항공청장, 감사담당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 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안전점검 등을 위해 건설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한편 김규현 전 청장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익산=장영원 기자



LX는 지난 15일 유엔 공간정보관리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UN-GGIM-AP)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개최한 온라인 회의에서 효과적인 한국형 공간안전정보 제공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 코로나19 대응 국내 공간정보정책 모범사례 국제사회에 소개

LX, 유엔 공간정보관리 아태 총회 온라인 회의서 우수사례 발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직무대행 최규성)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국내 공간정보정책의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에 온라인을 통해 소개했다.

LX는 지난 15일 유엔 공간정보관리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UN-GGIM-AP)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개최한 온라인 회의에서 효과적인 한국형 공간안전정보 제공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회상회의 형식을 빌려 개최한 이번

비대면 웹 세미나에서, 김택진 LX공간정보본부장은 "LX가 지도 제작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한 '코로나19 종합상황지도'는 출시 1주일 만에 1억 뷰를 넘겼다"면서 "이와 함께 경남도청과 손잡고 제공했던 코로나19 위기는 정확한 확진자통신과 의료기관 위치 등을 시각적으로 제공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호평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또한 "우리나라 공간정보정책은 평

소 공간정보와 빅 데이터를 실생활에 다양하게 접목시켜 국민 편익을 증진 시키려 노력한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LX는 아태지역과 함께 이러한 노력과 성공을 공유하여 국제사회 협력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웹 세미나는 한국과 호주, 일본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참가해 코로나19 사태에 적용 가능한 공간정보 활용 국가별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사)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는 최근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실버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지역 노인일자리 창출 적극 동참

한전 고창지사-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 실버 일자리 창출 협약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지사장 가장호)와 (사)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지회장 정기수는)는 최근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실버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협약을 통해 고창지사는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고창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력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협약에는 △지역 어르신 전력사업 참여 기회 확대 △작업 전 안전 교육 실시 및 안전 장비 구비 △최저 임금

보장 등 고용 관련 법령 준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호 지사장은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내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지역 축제 일일 홍보 도우미, 전력설비 주변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의 협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고창 지역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해 한전의 사회적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상 기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도내 전지역 농협은행 등서 신청 가능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늘부터 전북 전지역 농협은행 및 농협협업점 어디에서나 신청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농협 신용/

체크카드로 신청 가능하며, 카드 미보유자는 세대주 본인이 영업점에 방문해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영업점에서 원스톱으로 재난지원금 신청까지 가능하다.

영업점 방문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늘부터 22일까지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요일제'로 접수 받고, 25일부터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접수받는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하나마트 등 농협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 가공원료용 고구마, 논 재배로 대량생산 가능

농진청, 전북도 등 농업기술원 4곳과 기술 개발

앞으로는 논에서도 고구마를 대량으로 재배하는 것이 가능해져 수입 가공원료용 고구마를 대체하고 농가 소득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년간 가공원료용 고구마 수입량은 29만 5천 톤(2019년 기준)으로, 논 500ha에 전분용 고구마 재배할 경우 전분 수입량의 10% 이상 대체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고구마 심는 시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논 재배에 적합한 가공원료용 품종을 추천하고 재배 관리 요령을 지난 15일 소개했다.

최근 고구마 말랭이, 빵, 칩, 페이스트 등 다양한 가공제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공원료용 고구마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논에 가공용 고구마를 재배하면 품질 좋은 고구마를 대량 확보해

전문이나 건조고구마 등의 수입량을 낮출 수 있으며, 농가는 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관리를 확보할 수 있다.

논 재배에 적합한 품종으로는 전분용은 '고건미'와 '대유미', 칩·말랭이용은 '풍원미', 음료·분말용은 '신자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건미'(40톤/ha)와 '대유미'(36톤/ha)는 밭고구마 계통으로 전분량이 7.3톤으로 높아 전분용으로 적합했다. '풍원미'(44톤/ha)는 맛과 식감이 좋아 칩, 말랭이용으로 알맞고, 자색을 띤 유색고구마 '신자미'(36톤/ha)는 음료나 분말용으로 양호했다. 이 품종들은 평균 수량이 ha당 35톤 이상으로 밭 재배와 같거나 10% 이상 높았으며 품질도 좋았다.

고구마 재배는 물이 유입되기 쉬운 논뿐이지 보다는 기계와 정식이 가능하고 물 관리가 편리한 마을

및 밭 주변의 계단식 논이 적합하다. 또 물 빠짐이 잘되는 사양토, 미사질양토 등이 좋다.

모를 심기 전에는 비나 외부로부터 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농기계 통로를 제외한 사방에 배수로

를 내야 한다. 모를 심은 후에는 물 빠짐이 잘 되도록 골 끝 부분의 배수로를 잘 정리해 준다. 고구마는 덩이뿌리 무게가 증가하는 시기(비대기) 및 수확기 무렵에 3일 이상 물에 잠기면 썩기 쉽고 껍질색 등 외관 품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노재환 소장은 "현재 4개 지역의 농업기술원과 가공원료용 고구마를 논에서 대량 생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농가 대단위 시험 재배를 통해 생산 기술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대야농협 쌀 '큰들의 꿈' 대표브랜드 선정

군산 대야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가 2019년 팔도 농협쌀 대표브랜드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쌀 브랜드임을 인정 받았다.

농협 전북본부(본부장 박성일)은 지난 13일 치러진 '5월 정례대회'에서 대야농협(조합장 민운기)에 팔도 농협쌀 대표브랜드 우수상 표창패와 부상을 시상했다.

팔도 농협쌀 대표브랜드 평가는 전국 RPC에서 판매하고 있는 150개의 쌀 브랜드를 대상으로 고품질 품종, 수분함량, 단백질 함량 등 농협 식품연구원 1차와 2차에 걸쳐 품위평가를 진행하고, 품위평가 상위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 및 전문 평가위원들이 향, 밥맛, 윤기 등을 평가하는 식미평가로 진행되며, 그 중 고득점을 받은 상위 5개 브랜드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박성일 본부장은 "철저한 계약재배를 통한 품질관리를 명실상부한 전국 쌀 대표브랜드로 선정된 대야농협에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관내 RPC와 협력하여 전국 최고의 쌀 대표 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운기 조합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전국 대표 쌀 브랜드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의사로서 지녀야 할 성품

함양 위한 교양서 제공

예수병원, 열린도서관 오픈

예수병원 교육수련부 의과도서관은 설대위동 4층 인턴숙소 앞 복도에 지난 15일부터 열린도서관을 기획해 오픈했다.

이날 오픈한 열린도서관은 예수병원 전공의들이 의사로서 지녀야 할 성품 함양 및 휴식을 위한 교양서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했다.

열린도서관에 비치된 서적은 김효준 교육수련부장이 구입 기증한 138권을 포함해 전공서가 아닌 종교, 선교, 심리, 정서, 대인관계, 생물, 과학, 소설, 일반서적 및 일반 정기간행물 등으로, 총 5종의 정기간행물과 250권의 도서다.

열린도서관 이용방법은 대출을 원하는 책의 뒷장에 부착된 대출카드를 작성 후 카드를 서가 옆에 비치된 대출카드함에 넣으면 된다. 다 읽은 책의 반납은 반납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1인 1책, 대출기간은 2주로 운영된다.

예수병원은 직원들이 수준 높은 휴식과 힐링의 공간인 열린도서관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얻고 교양을 함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